

## 경남협의회

**환경보전을 위한 워크샵**

경남협의회(회장·박규대)는 지난 5월 16~17일 1박 2일간 경남 산청군 경상남도 자연학습원에서 「환경보전을 위한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회원 및 지방 환경인들을 대상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1백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폐수배출시설 설치업무 처리요령 해설」, 「환경관계법령해설」, 「환경친화기업 추진사례 발표」 및 「방지시설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강연과 학습원 주변의 정화활동을 실시하였다.

## 광주·전남협의회

**폐수배출시설 지도 교육**

광주협의회(회장·방극진)와 전남협의회(회장·김왕근)는 지난 4월 26일 서광신협 강당에서 「폐수배출시설 업무처리요령에 대한 해설 및 환경지도 점검방향」이라는 환경인 실무교육을 실시하였다.

수질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 환경실무자를 대상으로 마련된 이날 교육은 「폐수배출시설 설치업무 처리요령 해설」과 「'96 환경정책 및 지도점검방향」 등 2개의 주제로 교육을 하고 교육 후에는 정보 교류와 함께 친목 도모의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 인천협의회

**제3회 환경인 워크샵**

인천협의회(회장·정승희)는 지난 5월 16일 경기도 장흥 써바이벌 행사장에서 「제3회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1, 2회와는 달리 써바이벌 행사로 대체한 이날 워크샵은 40여명의 회원 및 회원사가 참석한 가운데 회원간의 이해증진과 협동심 배양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행사는 자연속에서 생존전쟁이라는 게임을 함으로써 팀원간의 동료애 뿐 만이 아닌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새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 경기협의회

**환경관리인 기술교육**

경기협의회(회장·윤한규)는 지난 5월 6일 수원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제54회 환경관리인 기술교육」을 실시하였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환경관계법 개정 및 개정안과 신기술개발에 대한 교육으로 진행된 동 행사에서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선정 및 유지관리 방법」, 「환경공학에의 고액분리 공정의 적용과 검토」 및 「환경관계법 개정 및 개정추진안 설명」에 대한 강연과 교육이 실시되었다.

## 본연합회

## 고문 초청 간담회



본연합회(회장·유문하)는 지난 5월 22일 서교호텔 펠룸에서 「고문초청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연세대 권숙표박사를 비롯하여 8명의 고문과 전임회

장 및 6대 회장단 등 30여명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임회장단 인사, '95년도 사업경과보고와 함께 '96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가 있었다.

특히 제24회 세계환경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하는 '국가환경기술의 발전방향' 심포지엄의 진행사항과 올해로 8회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환경 관리장의 위상문제와 대외홍보방향 등 이상의 발전방안이 다양하고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이와 함께 이날 간담회에서 1차 서류심사를 마친 고문단은 5월 25일 소피텔 앰버서더호텔에서 2차 심사를 갖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고문단은 연합회와 회보의 역할을 재차 강조하면서 자사의 환경문제뿐 아니라 지방의제 21 등 사회적인 문제에도 환경관리인과 기업이 좀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할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

## 환경업계소식

## 공동폐수처리장 준공

시회염색전용공단의 공동폐수처리장이 완공되어 지난 5월 10일 동 처리장에서 입주업체 대표등 1백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이 열렸다.

수도권내 중소염색업체들이 협동화 사업으로 지난 91년부터 추진해 온 동 처리장은 법정 폐수배출허용기준(80~90ppm)보다 낮은 30~40ppm으로 설계, 완공되어 환경오염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제2종합폐수처리시설 완공

(주)유공은 지난 5월 2일 울산 단지안에 하루 처리 용량 1만8천톤 규모의 제2종합폐수처리시설을 완공, 시험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총 2백억원이 투입되어 1년4개월만에 완공된 동 시설은 올 하반기 완공될 예정인 제2종질유분해탈황시설과 제5정유공장 등 신규시설에서 배출되는 공정폐수를 처리하게 된다.

## 「녹색경영」 선언

대우중공업은 지난 5월 10일 30여명의 임원들로 환경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오는 2000년까지 환경부문에 모두 1천3백억원을 투자하는 등 환경친화적 경영체제 구축을 내용으로 한 「그린조선」을 채택, 발표하였다.

이날 경남 거제시 옥포조선소에서 2천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1세기 그린조선 선언·선포식」을 가진 대우중공업은 「전사 차원의 환경위원회 설치 운영 등 전 종업원의 그린요원화, 감량화·재활용·재사용 등 3R운동 전개」 등의 실천내용을 선언하였다.

삼성그룹은 지난 5월 15일 삼성생명 국제회의실에서 정종택 환경부 장관과 그룹회장 및 사장단 등 임직원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녹색경영 선언문」 선포식을 가졌다.

세부 실천목표를 경영·공정·제품·사업장·지역사회 등 5개 부문으로 나누어 단계적 운영을 추진하기로 선언한 삼성그룹은 오는 2000년까지 총 2조1천3백억원을 들여 각 사업장에 폐수 무방류 시스템 도입등을 벌여나가기로 하였다.